‘너·나·우리’ 인연법으로 東國 이끌다



자광 스님은… 1959년 구례 화엄사에 입산해 경산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고, 1963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받았다. 해인사승가대학을 거쳐 동국대 종비생 1기로 졸업하고 1970년 군승 중위로 임관했다. 월남전에 참가하기도 한 스님은 귀국 후 3군 선봉사와 육군사관학교 호국선원을 창건했다. 1981년 육해공군 군승단장을 역임했으며, 1987년 대령으로 승진, 3군 군종참모와 국방부 군종실장을 지냈다. 1995년 대령으로 예편하고 다시 종단으로 돌아가서 비구 수행자가 됐다. 이후 조계종 제2대 군종특별교구장과 호계원장을 역임했다.

특별인터뷰 **자광 스님** (동국대 이사장)

군승서 교육자로 변신

2016년 6월 동국대 이사장 선출

학교식당 이용 · 법당 예불 생활화

솔선수범하며 주인 의식 일깨워

‘불교 종립’ 정체성 세우기 위해

매년 법인 산하 수계법회 봉행

‘원융회통의 리더십’ 보이다

미화원 사태 당시 대타협 이끌어

올해 직고용… 상생 관점서 해결

초파일 · 명절 오찬하며 소통 행보

19대 총장 선거, ‘축제’로 유도해

글=신성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2016년 동국대는 안팎으로 펼쳐진 갈등에 몸살을 앓고 있었다. 18대 총장 선거 당시 ‘종단 개입’ 구호 아래 불거졌던 일련의 사태들로 2015년 11월 동국대 이사들이 순차적 사퇴를 결의했고, 12월에는 일면 스님이 이사장직을 내려놨다.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6개월여. 2016년 6월 20일 열린 제304회 이사회에서 제39대 이사장으로 자광 스님을 선출했다.

자광 스님은 여러 가지로 감회가 새로웠다. 은사인 경산 스님 1963년 동국대 이사장으로 취임하며 종비생 제도를 만들었고, 자광 스님 자신도 종비생 1기로 동국대에서 수학했다.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한 자광 스님은 “학내 사안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 화합과 대화를 최우선에 두겠다”며 취임 일성을 내보였다.

화합 · 자비심으로 달려온 3년

그로부터 3년. 현재 동국대의 학내 분위기는 편안하다. 사회적으로 뛰어난 성과도 잇달아 내고 있다. 최근 발표된 대한민국 창업우수대학에서 동국대는 창업 지원 부문에서 1위에 올랐다. 동국대는 지난해에는 순위권에 들지 못했지만, 부단한 노력으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4월에는 교육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2단계 사업에 최종 선정돼 2021년까지 약 110억 원의 국고를 지원받게 됐다.

이밖에도 고교교육기여대학사업(10억원), 평생교육체제 지원(30.5억원), 혁신성장 청년인재 양성(24억원), 초기창업패키지(19.4억원) 등 주요 연구사업들이 선정되며 2년 연속 700억 원대 연구비를 수주하기도 했다.

동국대의 이 같은 성과의 기저에는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학내 화합을 위해 동분서주한 이사장 자광 스님의 노력이 있었다.

자광 스님이 보여준 3년 간 행보에는 ‘화합의 리더십’이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청소노동자들과의 대타협이다.

지난 2018년 1월 29일부터 동국대는 청소노동자 파업 사태로 내홍을 겪었다. 청소를 하지 못한 학교는 쓰레기가 넘쳐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파업 시작 후 86일인 4월 24일 동국대와 청소노동자들은 그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했다. 이런 극적인 타결에는 이사장 자광 스님의 제안이 있었다.

“2018년 초부터 수개월 간 지속된 미화원 파업 장기화 문제를 ‘상생’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때마침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오더군요. 부처님의 넓은 자비심으로 학내구성원인 청소노동자들을 안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노조 모두 서로 어려운 입장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참회 · 화합 · 상생’을 도모하자는데 합의점을 찾은 것이죠. 물론 미화원 전원을 직고용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증가는 매우 큰 고민거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의 약자인 미화원들의 애환을 외면하는 것은 부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이에 따라 결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당시 노조에게 한 ‘직접 고용’ 약속은 올해 2월 1일자로 이뤄졌다. 관련 노동자 97명 전원을 직접 고용했고, 앞선 1월 30일에는 이사장 자광 스님과 前 총장 보광 스님이 직접 단주와 직원증을 수여하는 조그마한 행사도 열리기도 했다.

이후에도 자광 스님은 청소미화원을 비롯해 학교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경비 근무자, 주차 관리근무자 등과의 만남을 주기적으로 갖고 이야기를 들으려 노력하고 있다.

부처님오신날과 명절마다 청소미화원 · 경비 · 기능직 근무자 대상 오찬을 열어 노고를 치하하고 한 아름 선물도 전달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경비 · 주차관리 근무자들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공하고 반드시 착용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자광 스님의 바람은 하나다. 모두 학내 구성원으로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며 ‘상생 · 화합’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요즘 말로 저도 흙수저 출신입니다. 스님으로 살다가 이사장이 된 것이죠. 그래서 청소미화원, 경비 근무자 등의 사정을 잘 압니다. 그래도 학교는 생활터전입니다. 이곳이 무너지면 서로 있을 곳이 없습니다. 이제 직고용된 미화원 모두가 이제는 동국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주인의식을 갖고 일해주길 바랍니다.”

지난 제19대 총장 선거도 이사장 자광 스님의 리더십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다. 19대 총장 선거는 유례없는 개방형 선거로 10명이 출마했다. 4자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했고,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부터 토론회까지 모든 선거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됐다. 이 과정에서 이사장 자광 스님은 “학내 구성원 가운데 차기 총장을 선출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하는 등 원융회통의 선거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총장은 학교 이끌고 나갈 운영자를 선출하는 것인데 매번 이전투구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19대 총장 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상황이 관습으로 굳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 스스로 슬로건을 ‘총장 선거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가장 민주적 방법으로’를 세우고 화합 안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자유롭게 출마하고 자기 정견을 발표하고 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 19대 총장 선거는 분명 이전과는 달랐다고 자부합니다.”

‘불교 종립’ 주인의식 고취

화합과 함께 자광 스님이 학내 구성원에게 강조한 것은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한 ‘주인의식’이다.

자광 스님이 강조하는 불교정신은 ‘지혜 · 자비 · 정진’이라는 동국대 교훈에 정립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 운영과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사로 동국대에 왔을 때 마치 주인이 없는 학교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비유하면 목표를 잃고 항해하는 배 같았습니다. 부처님의 팔만사천대장경이 학교의 상징이고 학문의 근거가 되는데 이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불교 종립으로서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자광 스님이 택한 방법은 ‘솔선수범’이었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특별기획
동국대 일산병원 완화의료센터 개소

B5
문화
대형 창작 뮤지컬 ‘싯다르타’

B6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
38번 사찰 순례 여정